

## 원종만, 제14대 서울시육상연맹회장취임

원종만(39) GC컴퍼니글로벌(주)대표가 제14대 서울시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8월13일 서울시육상경기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 회장은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육상연맹 선관위는 선거 규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②항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종만 후보가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발표했다.

원 회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육상전문화인 스파이크를 신고 제주지역 800m종목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군 제대후 2008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13년간 근무했다.

소방재난본부 근무당시 소방과 안전과 관련된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등록특허를 보유한 이력이 있으며, 해당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요식업에도 도전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짧은 기간안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급속도로 성장시켰다.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을 찾던 중 좋은 기회에 서울시육상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게 되었다.

원 회장은 “그간 서울시 육상을 이끌어온 역대 회장과 회장사의 뒤를 잇는다는게 부담이 크지만 막중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밝히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번 2020도쿄올림픽 높이뛰기의 우상혁선수처럼 스타가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새로운 화합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